朝鮮日報
夕刊朝刊合九面
發行所 朝鮮日報社

社說

獨逸國民은언제나깰가?
빌트博士의大聲叱咤

一

今月二十二日의東京電은 비스맑公一代記의大映畵를傳하더니 二十四日뻘도電은 獨逸元首相빌트博士의聲明을 傳한다 빌트博士는 自己의所屬黨인中央黨總務에게 對하야 今後自己는 社會共和中央黨의議員이라稱한다는뜻을 聲明하엿섯다 二十五日뻘도發電은 빌트博士의 이聲明의趣旨를 說明한바 잇섯다 卽 빌트氏는 最近獨逸議會에서 通過된新關稅定率法問題에關하야 黨과意見을달리하야 中央黨의右傾을 非難하고서 드듸여領袖地位를辭하엿다하다 아마 그와同時에上記의聲明을發한것갓다 비스맑公의一代記映畵、빌트博士의聲明、이두가지는 獨逸現下의政情을 卜知하는好個의資料됨을 不失할것이다

二

비스맑公의偉績에對하야는獨逸全國民이 모도다敬意를表할뿐아니라 獨逸國民이아니라도 그에對하야 敬意를아니表할수업다 그런으로 비스맑의一代記를映畵하야 一般觀覽의用에 供하기로 何等異常스러운생각이업슬것이다 그러나 只今은 時期가時期인故로 비스맑의一代記映畵를 單純한映畵界의一問題로할것이아니고 獨逸政治界의 重要한問題가되고 따러서 歐洲政界의一大話題가 될것은明白한일이다 獨逸은戰爭에敗北하야 莫大한負擔을하게되엿다 世界를한번휘잡어흔들려고하던그들이 失敗하고본즉 그怨恨이何如하랴? 그러나그들은 또한가지를미덧섯다 즉 戰爭의責任者라고하야 皇帝만넷쏘치면 聯合國은퍽負擔을輕하게하여 주려니하고 매우쉽게問題를생각하엿섯다

三

그러나 佛白兩國의獨逸로부터바든苦痛은 到底히그國民들의怨恨을 緩和할수가업섯다 그리하야 英米兩國의調停的努力이잇섯지마는 畢竟벨사이유平和條約이成立되여서 獨逸에賠償의總額은 平和條約이調印된後三年만에 卽 一千九百二十一年五月五日의 倫敦最後通牒에依하야 決定되엿스니 一千三百二十億金馬克이엿섯다 이最後通牒이 問題가되엿슬때에 中央黨의一角에서 屹然히이러나서 그接受를 主張한이가 빌트博士이엿섯다 그리하야그는 獨逸宰相의印綬를띄고 履行政策을 忠實히 把持하여왓다 勿論그履行政策에對한國粹黨側의反對야말로 말할수업섯다 그리하야 빌트政府의外務大臣 라테나우博士는 一千九百二十二年六月二十四日午前十時에 國粹黨員의손에殺害를當하엿다 그結果 七月十八日에 共和國保護法案이 獨逸國會를 通過하고 九月에 多數社會民主黨과 獨立社會民主黨이 合併하게되엿섯다

四

[illegible]數의[illegible]에對하여는 問題가만잇지마는 何如間獨逸에게 白耳義國에對한賠償義務와 佛蘭西에對한賠償義務를 認定하는것은 公平한態度라아니할수업다 戰爭에對한責任이 果然누게잇섯는가하는問題는 到底히어려운問題이겟지마는 何如間獨逸에게는 적어도 他國과 同程度되는責任은잇다고認定하지아니할수업고 戰爭으로因하야 直接損害를多蒙하기는 聯合國側 그中에도佛白兩國인즉 그에對한獨逸의賠償義務를認定하는것은 참으로當然한일이라할것이다 그럼으로우리는 履行政策을主張하는 獨逸社會民主黨乃至中央黨一部의態度를 是認하는者이다

五

그런한데 獨逸國粹黨側에서는 十一月犯人이라總稱하야 一千九百十八年十一月의獨逸革命을 指導한社會民主黨을 蛇蝎視하고 敗戰의責任을 全혀一千九百十七年夏間에 獨逸國會에서 通過된平和決議案의提唱者이고 一千九百十八年一月의 軍需品製造工場從業員 大同盟罷業의煽動者로보는 社會民主黨에게 돌린다 그리하야 國粹黨은 다시帝政을樹立하야 十一月犯人되는 社會黨을撲滅하고 一步를더나아가 벨사이유平和條約外지도 破棄하고나가자는것이다 그리하야 赤露를排斥하고 白伊와氣脈을通하야 世界의反動的勢力을 助長식히려하는것이다 그終結은 또다시世界大戰이되고말것이다 今番獨逸國會에서 通過된關稅定率法은 昨年八月十六日에 倫敦서決定된 또스案實行에關한負擔을 勞働階級에 더만히식히겟느냐 資本階級에 더만히식히겟느냐 하는問題이엿섯다

六

今年四月二十六日에 『힌덴부르그』將軍을 大統領으로마저들이고 只今또 비스맑一代記를 映畵하야 크게國粹運動中에잇는 獨逸에잇서서 勞働階級의負擔을만히하는 新關稅定率法案이 通過되게된것은 도로혀當然한일이다 그러나中央黨의左翼을成하야 社會黨과 즐거提携하야 獨逸을참으로 民主的으로指導統治하고 國際問題를平和的으로 互相公平한見地로보아서 解決하려고하는 빌트博士는이에 소래를크게처 現內閣의政策에 反對하는것을明白히聲言하고 社會共和中央三黨을 聯合하야 獨逸의中心勢力을 作成할意向으로自稱社會共和中央黨의議員이라하엿다 그는徹底한民主主義者이다 이에外電은二十五日에 龍中에佛白占領軍이 獨逸두얼地方에서完全히撤退하엿다함을傳한다 佛國은 이와가티하야 漸次世界의同情을 다시어더간다 萬一獨逸國民이 빌트博士에게 聽從치아니하고 그대로 나간다면 또다시戰前의國際關係를 形成하야 또다시戰後의 國際關係를 形成하게되리라 一千九百七年에 列國은海牙에모혀서 平和策을 한참講究하는中에 獨逸皇帝는『비스마-크』에서 唐突하게平和政策을攻擊하는演說을 하게되고 따라서 平和會議의 모든計劃은 獨逸委員의反對로 因하야 水泡에歸하고말엇다 獨逸國民은 또다시이와가튼態度를取하려는가?

保障協約回答과 獨逸政府의印象

(뻘도二十六日發) 保障協約에關하야對獨佛通牒에對한獨逸政府의第一印象은極히良好한듯하더라

米國의參加承認은 關稅還附實現에有利?

(뻘도二十六日發) 米國이中國關稅會議參加假招請을承諾한事에關하야倫敦『데일리、엑스푸레스』紙는社說로米利加代表者의會議參加는中國關稅의一切重要漸次還付할事의實現에有利한影響을與함이되리라하엿더라

八時間勞働制 社會黨에批准要求

(뻘도二十六日發) 『말세이유』國際社會主義者大會는滿場一致로英國의『롱시오』氏의提案을承認하야佛國이八時間勞働制度에關한華盛頓條約을獨英兩國의批准을條件으로此를批准하엿슴에對하야아즉批准을未了한諸國의議會로하여곰速히批准을식히고자萬國社會黨에要求하기를可決하엿더라

墺國鐵道罷業乎 給料五分減이問題되여

(나우엔二十七日發) 墺太利의鐵道官吏는給料의五分減이撤回되지아니하면總同盟罷業을하겟다고威脅하는中이라더라

前墺國參謀長 米國에서逝去

(뻘도二十六日發) 前墺洲參謀總長『콘라드본、엔서돌푸』將軍은米國에서逝去하엿더라

日米戰爭의危懼 米代表힐쿠잇트氏演說

(나우엔二十七日發) 目下『말세유』에開催中인萬國社會黨大會에서米國代表『힐쿠잇트』氏는左와如히演說하엿더라 目下日米戰爭의危懼가크다此는第一로米國資本家가墨西哥의油田을耽欲하는緣故오第二는日米間에存한諸疑心과競爭心이益益深刻하여진外닭이라云云

英佛主張漸次接近 戰時債務整理問題

(뻘도二十六日發) 對英債務整理商議를爲하야目下倫敦에잇는佛蘭西財政長官『카이요』氏는新聞記者에게對하야本問題에對한英佛兩國政府의主張은漸次接近中이라聲明하엿다그러나同氏倫敦滯在期間中에確定的協定의作成을하기는不可能한듯하다即『차칠』『카이요』兩氏는協定의基本될만한若干의根本原則을決定하고其後此에基하야英佛兩國財政專門家가協定의大要며細目을確定하게될模樣이더라

英、佛戰債協定 佛國의最後提議承認 六十二年年賦償還키로

(倫敦二十六日發) 英國藏相『최칠』氏는英國에對한佛國의戰債는每年千二百五十萬磅式六十二個年賦로償還한다하는佛國의最終提議를英國內閣이承認하엿다는뜻을發表하고또佛國財政長官『카이요』氏는同案을本國政府에提示하야承認을得하기에同意하얏더라

共產黨의示威運動 波公使館爆破를計劃

(나우엔二十七日發) 巴里警察은共產主義者가波蘭公使館前에서大示威運動을行하려한것을禁止하고嚴重히同國公使館을警備中인데共產主義者는波蘭政府가過般三名의同主義者를死刑에處한것을憤慨하야其復讐로公使館의爆破를決心함이더라

軍事共力協議次 小協商國의巴里會議

(나우엔二十七日發) 佛蘭西、波蘭及小協商國參謀本部는一朝事變에際하야行할軍事協力의計劃案을協議하기爲하야來月中旬巴里에會議를開催하려고圖謀하더라

露中會議 開幕式

(北京二十六日發) 露中會議開幕式은露國側으로부터『카라한』『쏘로비엡푸』『이와노푸』『슈왈싸톤』中國側으로부터沈瑞麟、王正廷其他가出席하야會議委員의組織에對하야協議한後『샹펜』을들어開幕式의成立을祝하얏다그리고歸國을傳하든『카라한』氏는歸國치안을貌樣이라더라

關稅會議 日本側回答 方今作成中

(東京電) 關稅特別會議招請狀에對한日本의回答에對하야는二十六日閣議에서幣原外相에게一任하엿슴으로目下亞細亞局에서參加할意思의回答文을作成中인바他列國은大概異議업슴이確實하나必히同文同書임을要치아니함으로今週中에는畢竟東京에서終하고來週中에代表의人選을終하고張代理公使에게手交되리라더라

地方稅制整理와 田中財務課長談

(東京電) 稅制整理案에關하야田中地方財務課長은말하되地方稅整理案은二十六日閣議에서其方針을決定하엿는데內務省이其原案을樹立하게된理由는大正十三年의地方稅總額은五億六千二圓十二錢二厘임으로如何히地方稅가國民의負擔을重케하는가를窺知할수잇고特히此를明治二十四年을基準으로하며考察컨대國稅에잇서서는十三年度가十倍地方稅에잇서서는十九倍의負擔增加가되야地方團體가極力緊縮方針을行할지라도遂히如斯한膨脹을이르켜將來도此趨勢는避할수업다하야內務省은此際國稅整理를機會로地方稅의整理를斷行하야地方負擔의均衡을식히고자함으로整理案을樹立한것이며其整理要點은 國稅整理에對應하야地租營業稅及所得附加稅를改正한事、府縣에特別地稅와家屋稅를新設한事、府縣의家屋戶數割을廢止하고市町村稅로할事、市町村의所得稅附加稅를府縣에委讓할事、府縣의營業稅와雜種稅의整理를行할事、義務敎育費國庫負擔金增加等爲主히稅制整理의資料에充當할事等으로이미各大綱이決定된지라關係法令及細目을決定하야調査委員會에提案하야決定할터이오尙且其實行은本稅整理案의實行期에順應하야來年度부터實施할것도잇고또明後年度부터實施할것도잇슬터인데本日閣議에서各閣僚共히大概諒解하엿슴으로大綱한異論도업고二三個間의應答이잇슨後意見을交換한結果何等修正업시本日閣議는原案을可決하엿다

朝鮮銀行 株主總會 整理案을可決

(東京電) 鮮銀에서는二十七日午後一時三十分東京支店에서通常總會와臨時總會를開催하고株主約五百名이出席하고宮內省으로부터入江內藏頭大藏省으로부터는島田特銀課長이列席한後鈴木總裁가營業狀況을報告하고議事에入하야損益計算書貸借對照表及準備金一千七十一萬千四百二十七圓을損失補塡에充當하는件等一括議題로하야審議할새爲先總裁가本議案에計上한三千六百餘萬圓의損害債權償却에對하야說明하기를『全然回收不能에屬한四十萬圓阿部商會百萬圓松田貿易會社四十萬圓富士合資會社百萬圓신리洋行等은取立可能이요一部切捨한分은佐賀炭坑高田商會日關貿易三井直輔日露漁業其他百口요其詳細는今後整理에支障이잇서說明하기難하다』고述한後質問에入하야二三株主로부터本議案의正確與否를確答하[illegible]

水稻作況 大概良好 ◇農林省發表

(東京電) 農林省發表本年의稻作은苗代時期부터七月中頃에至하기外지에氣溫이大體로低하야苗의成育及移植이조금遲延되엇스나七月末부터旱天을맛난氣溫이相當히高溫인外닭에成育이順調로進行하야施肥管理도相當히周到하게되엿고病虫害도尠少하야八月十五日現在作況은全國的으로普通作況에比하야良好한狀況으로그地方的作況을보건대如左하다

北海道 東北地方 普通
關東地方 普通
北陸地方 稍良好
東山地方(長野、山梨、岐阜) 稍良好
東海道地方 普通
近畿地方 稍良好
中國地方 普通
九州四國地方 稍良好

人事消息

▲矢鍋永三郎氏(殖銀理事)新任人事次로二十七日에本社來訪

哭譜(八)

民世學人

高句麗의平原公主 永春城에서溫達將軍을哭하니將軍의恨과貴人의淚가 자못千古情史의異彩를지엇다 그러나歷代의文人騷家이를 記述치아니하엿스니이것이一片貞婦의哭으로蕭條하게마치고말은일은善哭하는公主의泉怡의哭을듯는듯하다 志士의哭과 義人의哭과또는傷時憤俗하는高人의哭이 모다天下有心人의感憤을激發하는바이지마는 그러나 善人은哭에서省分을論함에無用함을밋는다 哭은至情에서나오는바이다 至情의哭이잇는곳에는 帝王의哭이나孤兒의哭이나 國士의哭이나美人의哭이나 사람으로하야금 湛憤感與하야 隱慨를瀉盡하고 渣滓를蕩滌하기에는桑扈의差가잇는것이다 눈물은人生을淨化한다알지못거라

千古薄命美人

哭禍厄中의女性들이얼마나善哭哀哭또痛哭하야天下多少의有情男兒로부터腸서斷腸의悲哀를늑게한엿는지? 『안토니쓰』를恍惚이心醉케하야그의群龍中에弄絡하든『클레오파트라』는英傑『옥타비안누쓰』를다시誘惑하려다가斷然히動치안코麾下의鑑嫁는敗沒하게되매그는그妖艶한容色이變할가겨허하야 飼養하든毒蛇에게물려죽엇다 그가『안토니쓰』를自殺케하고 自己를또失望中에自殺하엿다 그는自身을爲하야悲哭하고또覆沒되는『헐레나』世界의一王朝를哭殺케되엇다 美人은薄命이라한다 美人이반듯이薄命일理由는업슬것이다 그러나天下에愚者男이라고오죽美人인薄命女性을爲하야그悲哀와怨恨을남달리하는것이男性된者의一大災厄일것이다 明妃初出漢宮時 淚濕春風鬢脚垂라고 唐의王介甫는王昭君을爲하야明妃曲을지엇다 中國은文字의나라이다 女性의哀史를描寫함이자못汗牛充棟하는慨가잇지마는오즉王昭君을詠嘆함으로써그最를삼엇다 光彩動人竦動左右라고『비나쓰』가閨風拜服할만큼英爽한莊嚴美가잇섯든지는알수업다 그러나春來不似春한落寞한胡地에서年年히다만

塞南의春色을

悲憶하다가 이내그만黃沙白草萬里의殊域에一坏의靑塚을남겻다는明妃王昭君의哀史는 자못千古의 遺恨을 머물든 者이다 昔者馬氏는 太公望을背한것을悔恨하야馬陵道에土塚을남겻고 王昭君은漢天子의江山을懷戀하야塞北荒凉한胡地에一點靑塚을머물럿거늘 都統崔瑩은亡國의大痛을 닛치못하여서德勿山上에一座의赤塚을쌋첫다 一은不貞女이오 一은薄命美人이오 一은否運의亡國英雄이지마는그感憤怨恨하야聽聞者의悲憫을닐기는자못一般이다 同是天涯淪落人이라고白樂天은琵琶行을지어失意된美人으로써그江湖에落拓한心事를寓하엿다 留美人分天一方을賦하고托遺響於悲風이라고浩嘆하야蘇東坡는遠州의謫居하는悲哀를늑기엇섯다 그러나그는明天子在上을說하야董邵南의 放浪을吊하든韓之의그것과 그

慷慨한辭意가

同一한것이다 雞鳴山上秋夜月 蓋世雄과傾國美人 楚覇王과虞姬의生死訣別하는千古의大悲劇은이에再說치안는다 그러나漢王好色之[illegible]를說하야 虞姬의殘命을행여나回護코저하든 覇王의悱惻는 龍愛의篤함과哀悼의切함이또한千古의그儔가乏함을애닷게한다 漁陽鼙鼓動地來하니九重城闕에 煙塵이아득하다 靑驄의孤影 어즈버行路難만愁嘆하는秋風蕭索한馬嵬驛頭 絕代佳人楊太眞은宛轉蛾眉馬前死의哀切한場面을들어낸다 一陣의나는서리 淸艶한秋水芙蓉 하엽업시그芳魂이숨어젓다 金殿玉樓 霓裳羽衣 繁華의極과寵愛의篤이 다만一場恍惚한春夢일뿐이엇스랴? 春風桃李 秋雨梧桐 綿綿한此恨은끗칠줄이업는唐玄宗과 楊太眞의訣別은또한萬古情史의

絕大한悲哀가

아니냐? 두어라息夫人 班婕妤가모다君王의濃情함을哭하고東西歷代薄倖한女性 그血淚의哀話를傳하는者凡幾인을알지못하니누가塚中枯骨 幻滅한佳人들을屈하야 無用한男性의納詔을要할者이냐? 嗚呼和風春宵 皓月秋夜 寂歷한空山 無盡數薄命한孤魂들은 그任情自哭하며餘恨이업슬지어다 伊太利의溫泉場裡 無政府黨의 兇手는『엘리자벳』皇后로怨地에橫死케하니 그『합스부륵』家의否運을말함이냐? 北岳山下乾淸宮畔 一抹의靑煙에宇內가寒心하니 金谷의陵寢 永莫하신高宗帝는 그千載의恨이悠悠한가? 嗚呼人世의恨事는ㅣ 어써彈述하랴? 長白의山이屹屹하고漢江의水가 盈盈하도다 塵世의曚朧한史實 그

水濱에問할가?

入死出生不再造의 乾坤을흡길者畢竟그누구이뇨? 昔者에李道令이란者繡衣御史를지어湖南五十三州를按察할새 涂ㅣ南原에至하야未忘愛人成春香의苦節을念하고樵夫의謠言에속어서부지럽시新起한路傍塚에痛哭하니 嗚呼獄中佳人은望眼이欲穿키늘이에別人의塚을哭하는다? 塚中의人이湛然히諧이업거는어써曉히哭함을하는뇨? 그러나丈夫의一念이오죽그獄中人의身上에잇거늘 이千里相尋하는未忘阿郞을目睫間에두고 鐵窓苦惱의積年의際厄中으로부터문득塚中의孤魂으로부처버렷다할진대多情한繡衣郞의失際痛哭이또한

千古에淋漓한

者ㅣ아니냐? 나ㅣ英雄恨美人淚를李夢龍과成春香의더부는際會에보아서 다시萬解蒼凉한情思를품고 千古諷刺의深刻함을이르젓다. 그러나哭의意義됨이어써尋常또辭徵한者이냐?

商況 (廿七日 後場)

仁川期米

後場小返

各限俵合

米豆餘話

大阪期米

大阪氣配

各地期米

仁穀現物市場 認可는아즉未定

阪京當限受渡

株式 (廿七日)

京取前場 京取短期取引

後場保合

閑散小往來

一陽來復不遠

金剛電鐵暴騰

長期取引

後場諸株步調

取組代引算定日步

出來高

大阪長期株式

大阪短期株式

大阪短期步調

大阪短期氣配

東京現株

海外經濟 (廿七日)

綿絲 (廿七日)

大阪三品

橫濱生糸

京城綿絲布 (廿七日)(興一社調査)

七月物價騰貴

麥粉品薄

革命萬歲裡에 遠來한 露飛行家
上海에서 安昌男君과 握手
이십일에 상해에 도착하야

멀리중국(中國)을방문하려온아라사군용비행긔(軍用飛行機)두채는 북경(北京)을거쳐 지난이십일에 무사히 상해중국비행장(上海中國飛行場)에 도착하야 로동계(勞働界)와 학계(學界)의『타도데국주의혁명•만세(打倒帝國主義革命萬歲)』를부르는열렬한환영을 바덧는데 그대장(隊長)『스미드』씨는 특히우리비행가안창남(飛行家安昌男)군을맛나 일면여구(一面如舊)의환정으로구든 악수(握手)를 교환하고 장래한아비행계(韓俄飛行界)의련락을위하야 긴밀한약을매젓다더라(상해특신)

平壤에는 二十八日
관민의환영 이성대할듯

일본으로가는아라사비행긔는이십칠일오전팔시에북경(北京)을 떠나봉텬에도착하야그곳에서하로저녁자고 이십팔일 오전여덟시에 봉텬을떠나평양에 날러올예뎡이라더라(평양)

盛大한歡迎會
민간에서도출영

평양부령(平壤府廳)과상업회의소(商業會議所)에서는원래하는진객을위하야『야나기(柳)』호텔에서 성대한환영회를 열터이며 착륙장에도 민간유지 수천명이나가서 출영하고 환영의뜻을표할터이라더라(평양)

西面長을檢擧
원인은공금범포

강원도이천군서면(江原道伊川郡西面)면장 리호련(李鎬璉)씨는작년삼월에 서면면장으로 피임된이래 면행정을하여 오든터인데 관의에공금 수천원이업서진것이 발각되야 본월이십사일에 이천군경찰서에 검거되얏다더라(이천)

龍岡署突然活動
모중대범인의단서를어더
전서원총출동으로활동중

평안남도 룡강경찰서(平南龍岡警察署)에서는 지난이십오일오전관래 모처로부터 엇더중대범인의단서를어더 동서 관내인평남선진지동(平南鎭池洞)과갈천리(葛川里)를주심으로한부근 농촌일대에서 동서 고등계와사법계의 련합으로 비상선을느려노코 범인수색의 대활동하는중이다(진남포)

을리용하야 비번순사까지 오십여명의 서원를 비상소집하야 그밤중에돌연히치밀한

경계망을

권시에는려노코 그날 오전일곱시까지 시내후포리(後浦里)비석리(碑石里)부근일대에서 엄밀한 대수색을행한결과 후포리사십이번디 리학희(李鶴姬)란기생의집에서는 그기생의 모되는 림(林)(四八)청녀를중요한 증인으로 인치하고 밧금철대비밀히에엄중한심문을행하면서 일방으로는 경계망의범위를확대하여가지고 다시시외를향하야 범인추격을 행하는중이며 또한편으로는 범인이밤중에 교묘히배로 대동강을건너 황해도(黃海道)겸이포(兼二浦)와 신천(信川)방면으로 다라난흔적이잇다하야

수색대의

일부는황해도방면으로 추격을 계속하는등 실로 공긔가비상히 긴장된중에서 거의다른사무는 중지하고 범인수색에만 몰두하는중인데 탐문한바에의하면 이사건의 주인

大膽한 犯人二名
금전을강탈후 변복하고도망

별항보도한바 룡강 경찰서의수색대는진지동(眞池洞)으로부터 중대한시국범인(時局犯人)의뒤를추격하야 평남선갈천리(葛川里)부근을그몰밀도하고 그날밤열한시경에 진남포시내로 드러왓다는데 진남포 경찰서에서는 권긔 룡강경찰서수색대의 지신잇는 청구에의하야 이십칠일오전두시 권시가가 고동히잡도를

공은 룡강군오신면○○리에본적을둔홍○○(洪○○)이란청년과 김○○(金○○)이란 청년두사람이라는데 수일전에 동부(東部) 룡강(龍岡)어떤부호의집에 나타나서 거액(巨額)의 금전을 강탈하여가지고 교묘히 룡강경찰서수색대의경계망을 몰파하고 이십오일오후열한시경에 진남포 시내에잠입하야 후포리(後浦里) 사십이번디 리학희(李鶴姬)란 기생의집에서 기생의모되는 림성녀로부터

다른의복

을구하여가려 입고 변장한채로 곳문밧을나서 어데로인지 종적을감추어 버리고 마랏다는데 이십륙일오후에는 리학희까지 동서로인치하고 엄중히 심문중이라는바 범인수색의 경계망은 다시의외의 방면으로 확대될는지도 아지못하리라더라(진남포)

注意連發타가 畢竟에中止外지
黃海道少年大會經過
재녕에서처음되는대강연회
중지는되얏스나늣김이만타

지난 이십사일에 황해소년대회(黃海少年大會)를 황해도 재녕읍내(黃海道載寧邑內)에서 개최하엿다함은 긔보한바 어니와 당일에는 경성으로부터 온 사사상단데 합동위원(四思想團體合同委員)김찬(金燦)씨와 신녀성사원(新女性社員)허뎡숙(許貞淑)녀사가 래빈으로 참석하엿슴을 긔회로 당일오후여덜시부터 량씨의강연회가 잇섯는데 뎡각전부터 텽중은 륙백여명에달하야 회장내외에는 인산인해를이루엇고

오후팔시

오분에 황해도소년대회의장(黃海道少年大會議長) 최화숙(崔華淑)군의 사회로 허뎡숙녀사가 등단하야『소년운동과 부인운동의 귀착뎜』이란연데로 사십여분의 열변을토하야 일반텽중에게 무한한늣김을주는중에 립석경관의『주의주의』 소리가잇자 장내에는박수소리가진동하야 공긔는자못긴장하얏다가 긔인신양(奇仁信讓)의독창이잇섯고 계속하야

김찬씨가

등단하야 자각(自覺)이란 연데로 장시간의웅변이잇서 자본주의(資本主義)와 로농주의(勞農主義)를들어 착안뎜을 분명히일반이알기 쉬웁게 말할지음에 장내에는호흡하는 소리까지 업시긴장하얏섯는데 경관의『주의』『주의』소리를 련네번 부르더니 필경은 오후아홉시오십분에 중지명령을 당하야 부득이 폐회되엿는데 엇재든 강연은 권에업든대성황을 이루엇섯다더라(재녕)

孝昌園假家에 활동사진을

효창원가가(孝昌園假家)에수용중인리재민들은 주위의사정이조끔잘못되면 찰나주의(刹那主義)에기우러져 인심이거처러지고 계을러지기 쉬움으로 경성부에서는 그들에게교화선도(教化善導)를힘쓸터인데 그것은 활동사진으로하는것이 가장 유효하겟다하야 몬저위생사상을 고취하고 다음으로는 검저축 은률개량 기타랑풍미속의 관념을 주입하기에 로력할방침으로 이십칠일오후팔시에 데일회로 다음과 가튼종류의사진을영사하엿다더라 『우리는惡魔이다』◀强敵지부스』外數種

平洞水利組合과 住民一部의不安
장래리익은생각할결을업고 당장에는큰영향이만히잇다

전남라주(全南羅州)에서는 여러곳에 수리조합의 설립이잇슬모양인데 데일먼저 라주군평동면내평동 수리조합(羅州郡平洞面內平洞水利組合)의 설립이잇게되엿다 그리하야 군당국(郡當局)에서는 만반의됴사를 마치고 평동수리조합 설립인가신청(平洞水利組合設立認可申請)중인데 이에대하야 수리조합저수디(水利組合貯水地)의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사이에는 여튼

이비동 하다는바 이번수리조합이설립됨으로 인하야 우리의생명이 농작디(農作地)를빼앗기게되여 저수디(貯水地)내에토디를둔다주나 자작농(自作農)에게 한하야는

수리조합

에다토디를팔고 다른곳에이답(移畓)하면 다른관계는업지마는 다만 소작농(小作農)을하는주민의장래는 크게곤란하야 물의가 비등한모양이며 또는 소위일부조합원중에서도 수리조합의설립에 대하야 반대의성명을하엿는데 그내용을듯건대 여러가지원인도 잇지마는 수리조합의설립이 잇슴으로 장래에엇더한리익이

잇슬는지

아지못하나 수십만원의수리비(水利費)를 농리답의소유자가부담하게 된다면 여러가지의관계로 지금은자긔의소유토디(所有土地)이지마는 불원한장래에는 반드시 자긔의토디가되지못할것은사실이라하야 수리조합의 토디매수(土地買收)에응치아니하고 그와동시에 이십여명의련서로써 당국에진정서를데출하엿다는데 수리조합당국에서는 곤난한중이라더라(라주)

新舊作人의 小作爭議
구작인은쌕기고 검사국에까지가

옥구군 회현면학당리(沃溝郡澮縣面學堂里) 문종호(文鍾鎬)(二四)는 금년일월경에 군산(群山)에 잇는 일본인고리대금업 말곡모(末谷某)의소유인 토디를소작계약을하게되얏든바 지난 사월십삼일에 경작중 동리사는 문여락(文如洛)이가와서 이소작디는 내가하는것인데 네가엇재서이엿을 경작하느냐고 시비가 팽장하얏다는데 그내용을 듯건대 문여락의 소작권이 잇는 권긔말곡의토디를 중간에서 작케 되얏슴으로 그일을분히역인것이라는데 칠십 로인의것을 그와가티 이자한 문종호는 오히려경작을 방해하얏다고 고소한 바 문여락은 업무방해죄로 검사국에송치되얏다더라(군산)

小作權爭議로
구타까지하고 맛고소실까지

전북옥구군 남내리(全北沃溝郡南內里) 문종뎡(文鍾亭)(三三)과 동리문경무(同里文京武)(二二)는 소작권(小作權)으로 하야금 오래전부터 반목질시 하야오든바 지난칠월십구일은 권긔두 사람이 다가티 다른집에 김을매러갓다가 말다툼이 생기자 동일밤에 홀시가량 되야 문종뎡은 문경무(文京武)의집으로 가서 옥신각신시비를하다가 격투중에 문종뎡의 아우종우(鍾禹)(二三)가 와서 형에게 가담하야 문경무를두수란타한바 십여일을 치료케되얏는데 이말을드른

아닌밤중에 有夫女房에侵入
피해자의고발로경찰서에

안주군안주면건인리(安州郡安州面建仁里) 백구십번디 신인범(申仁範)(三二)이란자는 지난이십사일밤 열한시쯤하야 그동리삼십구번디 석병호의 안해박성덕(朴聖德)(二〇)이가 그남편은장사차로 출타하고 어린아이들만다리고 잇는줄을 알고 달려드러 불을끄고 덥고잇는 이불을벗기며 들어뎜빔으로 박씨는크게놀내여 소리를놉히치며 야단을하니가 그자는 밧그로뛰여나아가려할 지음에 박씨는 엇던놈이냐하며 붓잡으려하엿슴으로 그자의 입엇든샷스가 좀씨저지고 도망하엿는데 조금잇다가 그자는 다시드러오며 남의옷을웨찟느냐고 도리어 큰소리를하며달려듬으로 마츰 박씨의소리에 모이엇든 동리사람들이 행동을 책하야돌려보내고 박씨는이사실을 고발하야 라는바 이자가이와가티 방에 침입한 사실이 한다더라(안주)

夜巡 京城禮記 【五】

無産階級의『호텔』 一夜宿泊料五錢也

家庭不和로 자살타가미수

三歲小兒溺死

背夫逃走한少婦

人妻二名을 一時誘引隱匿

殘忍한妓生

日加月增하는 長城의刺身鬼

매삭사원

水雲教가滿洲에

義州郡當局의 無誠意한非難

理髮業者가 處女誘引逃走

江界郵便延着

累名을벗고저 青春美人自殺

壁中에彈丸

李忠模病勢漸快

貫鐵洞에棄兒

脚戲場이 修羅場化
심판불공평으로 구경군반대쟁

휘파람

在金堤學生懇親會

가뎡부인

가뎡평론 — 함부로 불르는「신녀성」

完山人

근일에 우리녀자사회에도 이른바 신녀성이 만히생기는모양이외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항용부르는신녀성의 의미와가티 착오된것은 다른사회에서는 보기 어려운일입니다 련애만하여도 신녀성이오 단발만하여도 신녀성이오 리혼만하여도 신녀성이라 합니다 이러케 리혼이나 련애나 단발하는그당자가 자긔스스로 신녀성이라 불러줍음 사회에강청한것은아니로되 엇지한인지 이사회사람들은 그것을함부로신녀성이라불느게됨니다 이것은 그러케우연한일이 아닌가합니다

이와가티신 녀성을함부로불느게되는 그일반심리를 한번 냉정하게 삶혀볼진대 그리면에는 얼마콤비웃는의미도 들엇고 미워하고 비방하는의미도돌어잇는듯합니다 새것에 조화하고 낡은것을 실혀하는 사람의 성정으로써 엇지하야 신녀성이란 새로운것을 악용하게되는것입닛가 무엇이그러한 원인이되겟슴닛가 이것은 우리새로운녀성되는여러분이 한번생각하여볼만한문데라고합니다이러한현상을한것날근문화를버리고새로운문화를건설하는과정에잇서서면치못할 현상이라하야 모든것을 단순히 해결한다하면구만이어니와엇어도우리네의생활을다만외계의힘에만맛기지안코 우리내부의생활에서도 원인과 결과를 구한다하면신녀성되는 여러분에게도 그만한책임이 멀머로업다고는 할수업슬듯합니다

이것은우리에게 참으로새로운것이라하야 자랑할만한실상된것이업시 다만 새로운것에 동경하는태도만이 외면에 나타나는것을 인하야 우리가 장래에 참으로크게 활약할만한 소질조차 그대로바리게되는것이 갓금가다가 일반사회에목로되는 싸닭에 일반사회의 새로운것에대한 반동사상이 신녀성이란말을 조치못한의미로 해석케 되는것인듯함니다 여긔에대하야는 참으로 신문화 건설의 권선에선우리 신녀성은 특별히 자중하여야 할것이라합니다

마님감인영국녀자 — 침착견실한성질 쾌활진중한행동
서양녀자의생활과긔질 (三)

영국은사면이 바다요 긔후가 서늘하며 습긔가만하서 그영향으로일반긔질이 점액질(粘液質)이되야 성질이 견실하고완강(頑強)하야무슨일이던지반드시성공하는 정신을 가젓슴니다이와가티

섬나라근성 이긔초가되야섬국주의를취하야다른나라와의교통이 적엇든까닭에 그성격이모다개인뎍(個人的)이되여바린것입니다 이러한성격ㅣ 죽개인주의(個人主義)는영국혼(英國魂) 인바자긔의의지를될수잇는데까지 충분히 발전하고아모조록 남히외계를 지배하라는욕심이 넘치는활동의힘입니다 이러한힘이 잇는까닭에 독립의정신을가지고자영(自營)의도를강구하야 그집업시 진취의긔상을 보이며 또한자긔의 행위에대하야는어데까지던지

책임을지라 고합다이리하면서도 국민이 잘협동하야 부분은 전톄와 조화가잘되는까닭에 굿세힌개인성을 보는동시에 또한편으로 공동심도볼수가 잇슴니다이러한점액질인영국부인은 함부로외계에잇는 다른불건에게 움직이는일이 업서감수성(感受性)이지둔하다할만큼침착함니다 그러나 한번엇더한긔회에던지 신경이 흥분하게만되면굿세힌힘과지속성(持續性)을 발휘하야용이히중지하는일이업슴니다엇잿든영국부인은침착하야

신사의안해 인듯한태도가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동양부인에 비하면오히려 퍽활발한편이오 행동이 뎍극뎍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국부인은자녀의 교육에대하야는 독립독행(獨立獨行)을본지를삼어자긔스스로의 로력으로써 이세상에서 살어갈것을가르침니다 그럼으로오늘날 영국이강대한것도 이와가튼『잉글시쉬마더!』(영국모친)이라는정신에서나온것이라할수잇슴니다이영국의모친이란말은영국의『쩬틀맨』이란말과조흔대우(對句)가되야그나라의독특한 의의를가진것임니다 이와가티영국부인은

성질이침착 한까닭에그들은 가뎡에잇서서는동양뎍(東洋的)으로굿게 가뎡을 직히여그남편되는 사람으로하여금 집안걱정을 긔히지안케함니다 그러나근래에는 영국에도 사교뎍부인과 남자와 터의뎍단상(議政壇上)에서녀자의권리를다토게되엿슴니다 그런데이영국부인들은엇더한 남편을 구하느냐하면 그들은실로침착하야 경거망동하는 녀자가아니면너무감정에싸지는일도 업고 또는너무리성으로 편벽되히흠느지도안코뎍판단으로선택하게됨니다 일반녀자가 조화하는남자로말하면

풍채가당당 하고위엄이 늠늠한 사람이라합니다

영국부인의모양으로말하면가는쓰양녀자라도키가대개후리후리하고 몸이간얄프며 허리가가늘고 얼골이외 씨처럼갸름합니다거긔에코스대가스고이마가넓직하고 눈은새옵하며 대개는쌍겁풀이젓슴니다

이와가티착실한영국부인들은 그나라의고유한개인주의의영향인지는 알수업스나 생활이란것이 무엇을물론하고

부부중심임 니다부부가 서로 도읍고서로붓들어 고락을 가티한다는것이생활의표어가됨니다 어머니로서의 자식에대한 알뜰한 애정은 비교뎍적다합니다 그리하야 부부가결혼한뒤에 자식이생기면 대개는 자긔의형세가 부요하여도 그자식이칠팔세만되면 다른사람의 가정에부탁하여키운다합니다

라주부인견학 구월이일에

전남라주군(全南羅州郡)에서는 읍내일반부녀에게 근검 저축의 사상을 고취하기위하야 금번근검장려강됴주간(勤儉奬勵強調週間)을긔회로하는동안예뎡으로라주면(羅州面) 의이십세 이상사십세이하의 부녀로써 목포부인견학단(木浦婦人見學團)을 조직하야 목포에잇는 각금융긔관기타 볼만한시설은 견부견학할예뎡인바 려비는 이원오십전이며 출발시일은 래구월이일오전열뎜차에라주역에서떠나서오후일곱뎜차에도라올터인데단원은이십명밧게모집하지아니할오로양력이달금음날안으로참가신청을데출하기를바란다

硏樂會員增募 시내서대문뎡 일뎡목에 잇는연악회(硏樂會)에서는 이번가을개학부터『바이올린』과와풍금과의학생을 증모한다는데 상세는 연악회에 문의함이조켓다고

新郞新婦 — 동경제국대학을금년봄에졸업한리학사최윤식(理學士崔允植)군과 경성 정신녀학교를졸업한박진성양의결혼식을 금월이십팔일에 선천북부교회당에서거행한다고

『아메카』魂 全十卷
칠월이십구일부터 조선극장에서상영

이영화는 애처롭고 용맹스런운어머니의 자식에 대한사랑을 주제로삼은것이다 우리는 이영화에서 이세상에는 전쟁처럼사람의 생활을 파괴하는것이업다는 것을 볼수잇다평화로운농촌자제들이 전쟁에 나아가목숨을 희생하는 그것뿐만 아니라그집에남어잇는 어린처자와 늙은어버이들ㅣ죽 생활에 아무능력이 업는 그들의 비참한생활이엇더한것을 볼수잇스며 이것을긔회로그집안에 숨엇든 모든인간갈등이엇더케 어러나는것을 우리에게 뵈어준다 평화로운농촌이 전쟁의 악마로인하야 그들을엇더케고로웁게한것을 깁히 늣길수잇다 이영화에 출연하는배우들은 마는사람의 눈물을짜어내인『오버드힐』에 출연 한이들이 다수이며 특별히『메리카ㅣ』부인의 로련한어머니의 분장은더욱관객에게심각한것을늣기게한다

金剛禮讚 (二九)

白雲香徒

噴雪潭

◇萬瀑洞의風景的光焰은影娥池에서그最高率을보입니다 들어갈스록집이커지고집어커질스록神秘만맛이암만해도주둡니다 그러나이 는萬瀑洞한아만가지고하는말이지 萬瀑洞로하야금萬瀑洞이되게하는여러物象ㅣ山容水態로말하면미상불萬瀑洞이갓가워지는대로그美觀그妙味를增上합니다

◇조곰조곰鮮明의度를더하든萬瀑洞의기와뽄과력가래긋출뚝뚝이분간하게되면水石의排置가부쩍緊張을더하야 멧바람非凡한一深淵을岩凹上에만드러노흐니다이것이八潭의始初인黑龍潭이란것이니黑이란일흠은아마南邊의岩壁이검게비침으로부터나온듯합니다 거긔서한段을올라서면琵琶潭이되니 그後方에나리누든물모양을인하야어든일흠이오 또한段을올라가면光景이훨신豪快하야지는碧波潭이니그알헤잇는어마어마한큰바위에碧波潭이라고題刻한것이頭北面西로곤두섯는것은 지난丁亥年漲水에나리질리는물쌀이뒤집어논것이라합니다

◇碧波潭우에萬象巖이라는두텸이가튼바위가고개를번쩍처들엇는데거위서부터이리커리여러토막臥瀑으로흐르든물이이岩穴을넘더따리면玉碎霧散하는것은噴雪潭이란것입니다움욱한岩穴이 飛沫에자욱하고 寒風冷氣가하다써를셔늘듯하야 얼는말하면 어름은업서도 氷庫속가트매 이나라에서는開闢以來로녀름、더위、쌈이란것이무엇입을아지못합니다 萬瀑洞어머가더우리싸마는그中에서도시원한데는여긔라할것입니다 더욱나리짓찟코 바다울리는우렁찬소리는肝膽까지도서늘하게하지아니하면마지아니할듯합니다

◇無心히섯다가白玉笛子가튼象香城이北다흥로서갸웃하고잇슴을보고는 아모나『에그저것보아』ㅅ소리를지릅니다 어떠케간드려저보이는지 뚝딱집어삼키고십은고유새입니다 그쁜아니라八潭도이미折半을거치게된여긔쯤은氣象이아주훨신편일더로펴어서 잔자미의오밀요밀을말고라도 胸次가한번快濶하고길거운뜻이미상불骨節까지심입을꽤닷지아니치못하매 누고든지한참徘徊盤桓하야얼는떠나기를앗기게됨니다

◇普德窟은正히이噴雪潭에서右方으로눕다케보이는法起峰의斷崖絶壁에생예를쓰고매달려잇습니다 어쩌서거긔다가거짓을해볼생각이낫든지그普德、美觀도그러려니와그보담도더그出入한勇猛과遺偸한果敢을한번稱讚할것입니다 潭의저것은向으로가파른石級을멧十百層인지허위허위올라갑니다 니마가다하서어연지모를다가한참만에보면어느덧집이나사뭇를엇든지집터비스듬한石壘가나서고인하야 前面인이오집히의업는집웅이모으으로솔져보입니다시근거리는부름화과번뎍거리는녑봉이마침내普德窟을발람에집어너흔것입니다 커다보면天上이어도 와보니또한人間입니다

獄中詩人 (三)

鐘鳴

아아 그얼마나 光痛한 詩人 아아 그얼마나 生命의拘束에 對한 무서운反抗의 노래인가?

이詩한篇으로도넉넉히 그가 健全한 詩想을가진 天才詩人인 것을 證明하기에 足할것이다 疑問의人物『가ㅣ라ㅣ』는 入獄後한번도 不平을일으킨다던지 또는 歎願을한것이업다 그는 단지獄吏에게 自己는充分히悔改하엿스니 가萬若放免만하여준다면 다시社會에나가서 보담 더善良하고賢明한사람이될수잇스리라고 말하엿슬뿐이다 그의性格은放棄豪活한그만큼 理智的이고 冷情한사람이엿든것은事實이다 그러나 放棄豪活한 속에도 洗着한맛이잇고 理智的인反面에는熱情的이고 冷情한것은눈물을감추기위한冷情인것을 當時사람들은理解하여주지 못한것갓다

그가偉大한天才인것을알자即時그는監獄圖書館에서 일을보게되엿다 그리고뒤미처 그의二十四週年誕生紀念日ㅣ即一千九百十年四月에主筆『존소』氏와 前判事『웜니암』氏의極力周旋으로『가ㅣ라ㅣ』는다시靑天白日下에自由로운몸이되게되엿다

그가出獄하든날아츰 看守들에서命令이나리기를苦待하고잇슬때 이미各新聞雜誌社의記者들이차저와서 出獄할때의感想을러어달라고 請하엿다 그는『쇠창살속이아니면……?』하며 가치여잇든 監房속으로다시드러가서 안으로門을다더거릿다 五年동안이나 看守에게請하야 그리고는詩人은 무엇인지깁히 생각하더니 詩한篇을러어看手에게傳하게되엿다그詩의웃節은 정말인가?

한은靜하고 한은悲한苦痛 나의이목에거리는스러지고또 다시暴風雨를것울두러워한다

이것은그가發表한最後의詩엿다 同時에 이것은 그가那個가아닌完全한사람으로서의處女作이엿다

『가ㅣ라ㅣ』는出獄하자 곳그의行跡을감추엇다 그에게의지안코 企待를가지고잇든文壇은 非常히落胆하엿슬뿐外라 어떤사람은 그를가르처『남의詩를 暗誦하는傲慢者』에지나지못한다고까지辱하엿다 그러나 누구나다가티 그가天才的詩人인것을 否認하지는안엇다

그뒤에도 永永疑問의人物인獄中詩人은나타나지안엇다 世上은다시그를拘引하려하엿스나 失敗에도라가고말엇다 그를出獄식힌 前判事와主筆은責任上 매우困難하엿다고한다

그리하야 그는大氣中에스러지는煙氣와가티 蹤跡을감추엇다(完)

◇新刊紹介◇

◇朝鮮勞働運動(創刊號) 이雜誌는在日本朝鮮勞働總同盟의機關紙로서今日우리朝鮮農民과勞働階級의教化를本領으로삼은것인바우리朝鮮農村의好個讀物이다 發行所는東京北多摩郡多摩村小田方一一二朝鮮勞働社 定價拾錢

거짓말한죄

옛날 어느 나라에 쥐가 퍽 만어서 사람이 살수 업섯슴니다。떡을해도 쥐들이 먹고 쌀을 싸어 노아도 쥐들이 먹고 담을 싸어도 쥐들이 뚤코 옷을 지여도 쥐들이 뜻어 노코 나종에는 사람들이 먹고 입을것이 업서질 지경 이엇슴니다。

그때 어썬 사람이『내가쥐를한머리도 업게 업새여 줄터이니돈 만원을달라』하엿슴니다。

모든 사람이 조와하면서『주고 말고 꼭 주지』하엿슴니다。

그 사람이 주머니에서피리한개를재내서입에대고불면서행길로거러가니까 이상도 하지요 이집저집 이골목 저 골목에서 쥐라는 쥐는 어미쥐 색기쥐 할것업시 모다 피리 소리를 듯고 쪼처나와서 뒤를 짜라 감니다。그 사람은 피리를 작고 불면서 바다가로 걸어 갓슴니다。뒤를 짜라 가든 수 업시 만흔 쥐들은 긔어코 피리 소리를 딸어 모다 바다 물속으로 드러 가서 죽어 바렷슴니다。

『자ㅣ인제 돈 만원을내시요』하니까 쥐가 모다 업서진 후이니까 돈을 안주면엇더라 하고 돈을 안주엇슴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른 피리 한개를 재내 불면서 행길로 걸어 갓슴니다。이집 저집 이골목 저골목에서 어린이란 어린이는 모다 춤을추며 뛰어 나와서 피리 소리를 딸어 갓슴니다。그이는 피리를 작고 불면서 산속으로 가니짜 큰 바위가 두갈래로 쩍 갈러지고 큰굴이 뚤녓슴니다。어린이들은 피리소리가조와서 굴속으로 모다 딸어 들어 갓는대 바위는 다시 딱 다더지고 말엇슴니다。

거짓말한 죄로『아들과 쌀과 손자들을일허버린 사람들이 아모리 울어도 바위는 영영 열리지안엇슴니다

小說 웃고십건 우서라! (二五)

周相作

一

봉선엮에는 편지를보고서 김주사가마중을 나와주엇다 의례히남편이 나와주려니 하얏든봉선이는 섭섭하고 야속하지안흘수업섯다

『글세여보 이왕오는길이면우리마누라도 좀데려다 줄일이지 혼자 온단말이요』

김주사는 뚝만나면서부터 첫인사가 이썬세다 마누라라는것은편화말이다 김주사의 눈치가 어제만나든 사람을 대하는것처럼 반가워하는눈치도업시 어벌정하는것이 부족한생각도 나고 한편으로는 자긔가의레히 올줄알고잇섯든 모양가타야서 마음에 든든하기도 하얏다

『그런데서방님은 웨좀안나오셧소』하고무른니까 김주사는역시어름어름하는 눈치로『서방님인지 난봉님인지 엇저녁부터그림자두 안보이니 어데로쐈지른는지…… 하여간 요근처의려관으로 잠간드러가 쉬어가지고 차저보지』하며 정거장근처의조고만 일본려관으로 끌고드려간다봉선이는 마음이선듯하며 무슨변들이 낫게로구나하는 생각이들어서 집으로바로 지정드려가겟다고 잉탐를하야 보앗스나 니까 잠간쉬어가시나 먹고잇스면 차저데리고오마고 달래어서 드려안치고 김주사는나가버렷다

행뎅그렁한 방에 혼자드려안젓스니 공연히겁이 북석나고 후회가낫다

『그러나번지 사수를 아는데설마못차질리야 잇겟니』하며가방에서 남편의편지를 ㅁ내어번디녀에게 내어보이고 무러보니까 그리 머지안흔곳이라한다 그동안남편에게 시름시름 배호든일본말을 여긔와서 이런케긴하게씃줄이야 몰랏다 그러나 이편에서이야기를 하라면 입과손을가티놀리어야 겨오뜻을통한다 하녀는봉선이도 그료리ㅅ집에 딸려오는 기생이거니하며 한참바라보고 안젓다가

『지금가신량반이 그료리ㅅ집에게신 이지요? 그리인제가십니까』하고얄아듯도록 떠듬떠듬 뭇는다 봉선이는 반갑고신긔한생각이나서 어떠케그러케 자세히아느냐고 무른즉 석달전에여긔와서 오래동안묵든 최상을차자단이든 이라고한다 이말을듣은봉선이는 또한번귀가 번쩍띄엇다 최상이라는말이 웨그리반갑든지 나오는우승을 감추면서 그래최상이 얼마나 묵엇느냐고 하직 거진한달동안이나 잇다가 집으로 갓다는이야기를하야 주일주일이나 잇다가 지금료리ㅅ에는 어떤일본『기상』하고와서 어갓다는것과 둘재번에 왓슬쩌써낫는데 그후에또와서 며칠묵엇다봉선이는『기상』이라는 말을듯더니 얼골이발개젓다 하녀보기에는지금이녀자도기상이니 싸저면엇어서그러는것이요또그 최상을차저온게아닌가도십허서

『최상을 아세요?』하며 하녀는 샛글샛글웃고치어다본다『최상을 아세요?』라니?그최상을 못니저 이목숨이 부러잇스며그러가고 피가말으는줄이야 어쩌 이왜계집아이의 알바이라 봉선이는 더좀이약이하고 십헛스나 반벙어리수작을하기에 진뎌이싸지고 몸이고달핏는지 엄줌얼줌 대답하고 세수ㅅ제구를듣고 널어섯다 남편이 금방분밋헤서드러오는것가타야 그동안얼른얼골치장을하라는생각이다

세수를하고 올려와서 시간을 보니 김주사가 약조하고간삼십분이 거진다되엇다 하녀가갓다가주는 경대압헤안저서 얼는분을엷게발으고 머리쪽지를 풀을싸하다가 그동안에오면하는 생각을하고 그대로 매만지면서도 속으로는 여러가지 생각이매압올둔다ㅣ어쩌하야 바로집으로 드러가게안하고 사긔야는려관으로 왓누?ㅣ 어제부터간분무를 들어가지고 이리도데려다논것이다ㅣ 오기는오겟지 그러나 갓갑다는데 웬일인구? 아모조록 이러다가 그대루녀물러세라는 金책인지도 모르지ㅣ 하지만 그러케쉽게!

이런생각을하며 입을 악물다가 아까 하녀가하든말을생각하고 눈이번안간 회동그래지며이대로 또 정오갈수하는 생각이물변듯 넘어낫다 뻣어노흔치마를 입고 나설까하다가 방한가운데 웃뚝섯다 시계를 다시보니약속한시간은 벌서넘엇다

『무슨원수가잇다기로서니 예까지 쪼차왓스면 인사차례로라도 만나볼게지 사람의인사가아니라! 어듸오나보자 제가오기컨엔에서 먼저가지는안는다 어듸두고보자 못맛나면 압록강물귀신밧게 더되겟니! 며칠이든지 기다려보자』

문득 이러한생각이 머리에떠올으자 독이질리어 얼굴이금시로햇속하야지며 현긔ㅅ증이 나는듯하야 주저안듯이 쓰러지며 가방에 머리를언고 모로누엇다 녀름이래로 신경쇠약이 심하야진데다가 긔차에시달리고 속이비어서 그런것이다

社告

一、支局의名稱 長連支局

一、支局의位置 長連郡東部里

一、支局員의職氏名 支局長 全錫淵

右와如히長連支局에關한一切를變更하얏사오니管內에居住하시는愛讀諸位는新聞請求及廣告申託等一切를直接交涉하시옵소서

朝鮮日報社白

今般本支局에서左와如히局員을任用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如此照亮하시옵소서

總務兼記者 崔祥炫
記者 金璜基

朝鮮日報長連支局白

今般本支局에서左와如히局員을任用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如此照亮하시옵소서

記者 金銀漢

朝鮮日報永川支局白

今般本支局에서左와如히局員을任用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如此照亮하시옵소서

記者 趙泰國
記者(江東駐在) 金天羽
記者(了波駐在) 金道洙
顧問 李晃均
顧問 韓景烈
顧問 金商俊

朝鮮日報成川支局白

今般本支局에서左와如히局員을任用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如此照亮하시옵소서

記者 趙鏞源

今般本支局에서左와如히局員을任用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如此照亮하시옵소서

記者 李善圭
記者 沈琦澤
書記 韓義錫

朝鮮日報忠州支局白

今般本支局에서左와如히局員을任用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如此照亮하시옵소서

記者 全琦煥
書記 李致默

朝鮮日報長城支局白

◇泗川學友會創立 … 泗川郡在外學友創立會를去十 … 良主金在酒 … 崔文 … 卿(泗川)

… 主催 朝鮮日報社仁川支局

001275